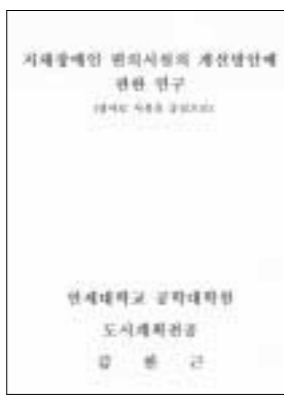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한근 건축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발표



포천에서 건축사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는 김한근(사진·43) 건축사가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소의계층을 위해 법과 규칙의 시행으로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물리적 환경 실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사용자들의 실증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생활환경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논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사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김 건축사는 경사로의 설치위치에 대한 만족도 조

사결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65.65%로 나와 추의 편의증진법 등의 개정시 경사로의 설치위치를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경사로 유효폭은 설치기준인 1.2m 이상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출입문 또한 안팎으로 모두 여닫을 수 있는 자유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으로 설치하도록 명문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경사로 높이가 0.75m보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휴식장은 현장조사 결과 거의 설치되지 않았으며, 미흡했다며 잘 지켜지지 않는 현행 설치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는 경사로의 여건에 따라 주 이용자의 검증을 통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김 건축사는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로 얻어진 자료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며, 효과적인 교육방식에 대한 연구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편

### 자유기고

## 한화와 함께 희망 나누리 '일일 학부모 체험'

한화그룹의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으로 노아의 집과 결연을 맺은지 2년째 되어간다. 한화봉사단은 3년간 노아의 집 시설장애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한 사회적응력과 문화체험, 자연체험 등을 지원하게 된다.

2007년도 사업명을 "한화와 함께 하는 희망 나누리"로 정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3월의 프로그램은 '일일 학부모 체험'이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에게 일일 학부모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노아의집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은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지훈, 황호욱 2명의 아동이다.

아침부터 학교 갈 마음에 기분이 들떠 있는 아이들을 일일부모가 되어줄 한화봉사자와 만남을 가졌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미리 준비한 선물



도 전해주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재택 학습만 아동이지만 삼정초등학교 신입생이기에 입학식에 일일부모와 함께 참석했다. 지훈이와 호욱이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들떠서 활재어에 앉아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다.

입학식이 끝나고 풍선에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려보내기도 했다. 일일부모와 아동들은 꼭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랐다. 입학식 후에는 일일부모와 함께 중국집으로 향하여 자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면서 학교생활 첫 출발을 축하했다.

4월의 프로그램은 '꽃밭 가꾸기' 행사로 한화리조트에서 노아의 집 아동들과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찬 꽃밭을 가꿀 예정이다.

이렇게 한화봉사단과 노아의 집 가족들은 2007년도에 희망을 함께 나누는 한해를 보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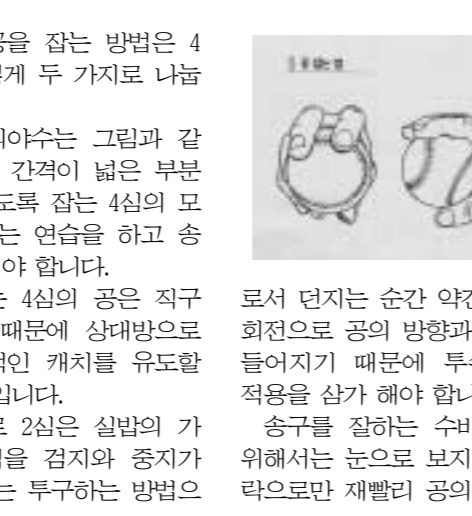
조미희 연화봉사단

### 자유기고

## 새싹 돋듯이 훌쩍 커버린 조카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모든 스포츠는 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 과학적인 움직임을 빨리 터득하는 일 또한,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 요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야구에서는 야구 이야기 1에서 말씀드린 야구공 표면의 108개 실밥이 마찰을 부리듯 직구, 커브, 변화구, 포크볼, 너클볼 등 다양한 구질의 공을 타자에게 선사해 주고 실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야구선수가 말로 이런 공을 잘 던지고 때리는 야구방망이로 멀리 때려내야 대접을 받습니다.



먼저 야구공을 잡는 방법은 4심과 2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내·외야수는 그림과 같이 공의 실밥 간격이 넓은 부분과 직각이 되도록 잡는 4심의 모양을 빨리 잡는 연습을 하고 송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잡는 4심의 공은 직구로 날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캐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2심은 실밥의 가장 좁은 간격을 검지와 중지가 잡아 송구 또는 투구하는 방법이



조승호 포천야구협회 회장

### 자유기고

## '스스로 머문다'

자유(自由)하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자유를 찾아 남쳐했다. 그런데 자유는 말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自由)는 생각할 때까지만 자유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行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외부로 표출(表出)하는 순간 구속(拘束)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할 때는 마음대로 해도 아무 구속을 받지 않지만 그 생각을 일단 외부로 나타내면 나타내지는 즉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自由'라는 글자를 들여다 보라. 글자 스스로가 말하고 있지 않은가? '自由'라는 글자는 마음대로 한다는 뜻을 지닌 글자가 아니라 '스스로 머문다'는 뜻을 지닌 글자이다. 스스로 머문다는

것은 스스로 구속(拘束)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自由'라는 글자에는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責任)을 져라.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권리(權利)에만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다. 자유(自由)에도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생각은 자유분방(自由奔放)하게 하되 표현은 절제(節制)하라. 절제하지 않고 생각을 그대로 표출(表出)하면 표출하는 만큼 구속(拘束)당하고 문책(問責)당한다. 절제하지 않고 표출한 만큼 도전(挑戰)받고 책임(責任)져야 한다. 시비(是非)에 휘말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제멋대로 때들다가 당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생각은 분량(分量)하게 하되 표현을 절제하라' 내가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물론 표현(表現)을 해야 한다. 외부(外部)로 나타내야 한다. 표현을 해야 의사소통(意思疏通)할 수 있고 평가(評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로 나타내야 많은 사람들과 교감(交感)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각나는 대로 때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나는 대로 표현(表現)해서는 안 된다. 상대(相對)가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초(國朝) 단군(檀君)이 홍익인간(弘益人間)을 말한 것이다.

홍익인간이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다 같이 잘 살자'는 가르침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가? 우리는 다 행히도 개국(開國) 초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가르침인가? 이 얼마나 뜻깊은 가르침인가?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생활화(生活化)해야 한다. 일상에서 몸에 배도록 후덕(厚德)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自己)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남'을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유'는 우리 헌법(憲法)에 보장돼 있다. 사상(思想)의 자유, 주거(住居)의 자유, 직업(職業)의 자유.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한다. 마음대로 이사를 한다. 마음대로 직장을 옮긴다. 물론 마음대로 한다. 아무도 이를 막지 않는다. 아무도 이를 강제(強制)하지 않는다. 원칙적(原則的)으로는 그렇다. 법적(法的)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마음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룰(rule)이 있기 때문이다. 규정(規定)이 있고 규범(規範)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자유이되 룰이라는 잣대, 규정이란 잣대 속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잣대가 없다면 방종(放縱)에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종은 자유가 아니다. 방종은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다. 상대를 배려(配慮)하지 않는다. 상대를 배려(配慮)해야 한다. 사회를 배려(配慮)해야 한다. 그리고 모두를 배려(配慮)해야 한다. 관계(關係)속에서 상부상조(相扶相助)하면서 영거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규임 연화봉사단 이사장

### 자유기고

## 아빠의 추억

아빠의 추억은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되었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것 같고 돌아가신 것 같지만 49세가 되었어요.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여도 평도는 게 가슴이 미어지네요. 작년 겨울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병원으로 가셨지만 심폐소생술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기쁘도 잠시 정신이 없어서 주사 바늘을 뽑아 버리고 아버지의 양손과 발을 묶어 놓고 또 검사한다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몇 일이 지나면서 하루에 두 번 중환자실 면회를 참 힘들었어요.

점차 좋아지면서부터 배고프다고 우유며 떡이며 의사 물레사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일이 생 각나네요.

다음 면회 때 비손으로 들어가면서 죄스러워 많이 울었어요. 일주일만에 3번씩 투석하던 것이 4번으로 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단다 하자 얼마나 먹는 거냐 없이 드시게 한다고 그 때부터는 가리지 않고 드시게 한 것이 참 잘 한 것 같아요.

아프고 고통 속에서도 늘 목수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것... 자식을 힘들게봐 아 프셔도 괜찮다고 했던 것... 지나

고 나니 모든 것이 곱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뒤로 한 달 만에 주님 곁으로 가셨지요.

남의 부모는 돌아가셔도 내 부모는 늘 곁에 계시길 줄 알았어요. 이제 병들고 힘없는 아버지를 주님 품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늘 지켜주시고 은총 주세요. 아버지 많이많이 사랑했습니다. 얼마 걱정 말고 평안히 잠드세요...



박옥식 주부행복지단 간담지구장

### Essay

## 추억속의 여행

올 정월 대보름달님이 숨어 버렸다. 세상이사 내려다보니 한심스러운 일이 많아서 보살펴줄 자비의 마음이 짙아졌다. 보이지 않는 달님을 찾아 오늘밤은 추억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

깊은 가을밤 드높은 창공의 달님은 그 맑고 고고한 빛에 다가설 수 없는 마음에 가만히 훑쳐보고 싶었다. 달님에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건축사는 포천시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 체육회 이사, 건축심의위원, 포천동주민자치위원회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무엇이든 집착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면 더 쉽게 무너져듯이 끝내 잡을 뜻이 없으면 쓰러지면 언니 오빠들이 밀가루를 눈썹에 하얗게 뿌려 놓는다.

달이 밝은지도 모르고 있으면 부름을 깨물어야 좋다는 눈도 뜨지 못한 입에다 후후, 밤을 쭉서 넣어준다.

정신차릴 틈도 없는데 핏맛은 옆집 친구가 밖에서 소리 높여 나를 부른다. 일론 대답을 하며 '내 더위 사가라' 대답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어머니 말씀이 그들의 잠에 취해 잊어버렸다.

그 시절이야 더위 때문에 겁나 할 체구를 가진 사람은 동네를 털어 봐도 없다. 일론내 소고기국을 몇 번이나 먹는다.....아이들 군것질이라야 옛에 버무린 강냉이 튀밥! 현 고구마도 서로 다투며 열 내출날 잠을 자면 귀신 이 와서 눈썹을 하얗게 세어버리면 절대 잠을 자면 안된다고.....

물질만능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안쓰럽다. 동심 포천의학회회교의 세계에서 그들이 누리며 즐거워야할 소재거리가 너무 없다.

오직 남보다 앞서는 재능만이 만족을 충족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과열된 교육경쟁은 전쟁터가 무색할 정도.....

어느 모퉁이에서라도 옛것을 연계해서 아이들 심성에 접목시키면 초등학교생이 자살하는 무서운 세상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눈빛에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밝은 세상을 열어 가는 오작고 다리라도 만들어질텐데.....

질은 구름이 걸치고 달님이 모습을 드러내면 두손 모아 간곡히 빌어봐주세요..... 세상 어린이들이 꿈을 먹고 자랄 수 있게 해 달라고.

### Essay

## 아버지...

어느덧 추운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되었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것 같고 돌아가신 것 같지만 49세가 되었어요.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여도 평도는 게 가슴이 미어지네요. 작년 겨울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병원으로 가셨지만 심폐소생술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기쁘도 잠시 정신이 없어서 주사 바늘을 뽑아 버리고 아버지의 양손과 발을 묶어 놓고 또 검사한다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몇 일이 지나면서 하루에 두 번 중환자실 면회를 참 힘들었어요.

점차 좋아지면서부터 배고프다고 우유며 떡이며 의사 물레사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일이 생 각나네요.

다음 면회 때 비손으로 들어가면서 죄스러워 많이 울었어요. 일주일만에 3번씩 투석하던 것이 4번으로 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단다 하자 얼마나 먹는 거냐 없이 드시게 한다고 그 때부터는 가리지 않고 드시게 한 것이 참 잘 한 것 같아요.

아프고 고통 속에서도 늘 목수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것... 자식을 힘들게봐 아 프셔도 괜찮다고 했던 것... 지나

고 나니 모든 것이 곱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뒤로 한 달 만에 주님 곁으로 가셨지요.

남의 부모는 돌아가셔도 내 부모는 늘 곁에 계시길 줄 알았어요. 이제 병들고 힘없는 아버지를 주님 품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늘 지켜주시고 은총 주세요. 아버지 많이많이 사랑했습니다. 얼마 걱정 말고 평안히 잠드세요...



박옥식 주부행복지단 간담지구장

### 자유기고

## 친정엄마의 퍼주기 사랑

부도남의 사랑은 우물물 같아서 퍼 주어도 퍼 주어도 솟는 우물물처럼 한이 없고 누가 말했나. 정말이지 그 말이 꼭 맞다. 친정엄마 너도나도 퍼줘서 가져 먹거리들이 가득 실린다.

올해로 83세이신 우리 엄마는 지금도 고추장을 담가주셔서 아들 며느리를 할 것 없이 모두다 가져 간다.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된장

을 맛있게 담아놓을 테니 갖다 먹으라고 미리 말씀까지 하셨다. 다리가 무릎관절로 불편해서도 어떻게 하면 자식을 먹거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으시려고 쉬시기를 앓는다. 가을 햇살에 가지며 호박 무우 시래기 등 핫한 방이 곳곳에 놓으셨다가 정월 대보름 나물해 먹으라고 실어 주셨다.

엄마 이제 자식 걱정 그만 하시

세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취사나 잘못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며 지켜봐오는데 정말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물체는 열심히 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한다고 약속했고 막내는 산업체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익히며 현장을 키우겠다는 꿈도 말했다.

예쁘게 커버린 우리 조카들. 봄바람에 새싹 훌쩍 크듯이 우리 아이들의 앞날에도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김순연 주부행복지단 나문지구장

### 자유기고

## 눈이 내리고... 그녀가 생각날 때...

겨울도 다 지난 봄 삼월이 올 한 박눈이 내리고 있다. 아침나절 싸레기 눈이 내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추워진 기상 변화로 인해 그 한박눈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한잔 어떨까?" 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힘들텐데... 그래도 그녀의 반응은 "그래, 우리 집에서 하자"라고 했다.

하지만 미안해서.

그녀서 "왜지?" 한잔하자. (相扶相助)하면서 영거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고미운지... 지난 세월 힘들게 이웃의 아픔을 이해해주며 살아온 탓일까?

한번도 나에게 짐을 주지 않은 그녀는 더욱더 힘들면서 표현하지 않아 항상 위로를 말로 잊지 않는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진다.

나의 주위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도 항상 나를 걱정해주는 그녀가 있어 난 행복하다.

그 누구라도 말은 할 수 없지만 나의 주변에 내 옆에 있어주는 아 쯔마부대인 그녀가 있어 참 좋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릴 때 더욱더 옆집 그녀가 생각나는 것은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나와 같은 이들이 많고 그들을 감싸줄 줄 아는 그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오늘 그녀가 있어 행복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늘 그녀가 나의 빛이 되어 주길... 모든 신께 기도하고 싶다. 옆집 그녀여, 언제나 행복하길...



박옥식 주부행복지단 이사



김순연 주부행복지단